

현대차 전주공장, 소외이웃에 전통시장상품권 4500만원 전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발전 위해 완주군 내 사용가능한 상품권 2000만원도 포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는 11일 회사 내 VIP접견실에서 전북 사랑의열매 측에 전통시장상품권 4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통시장상품권 전달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전라북도 내 소외된 이웃들과 각급 사회 복지시설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돋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전북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한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또 상품권 4500만원 중 2000만원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및 발전을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위치한 완주군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통상품권을 특별히 포함시켜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날 전통시장상품권 전달식에는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박종화 노조 전주위원회 의장 김동수 전북 사랑의열매 회장 등 참가해 소외이웃들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 사업에 앞으로도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이날 전북 사랑의열매 측에 전달한 전통시장상품권은 전라북도 및 완주군 관내 장애인·노인·저소득 가정 등 소외 이웃들과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들에 전달돼 이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북지역 전통시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11일 회사 내 VIP접견실에서 전북 사랑의열매 측에 전통시장상품권 4500만 원을 전달했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경영성과금과 추석 상여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사내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캠페인 결과 연인원 7200여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5억2,100만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받았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새마을회 추석맞이 어르신공경 효사랑잔치 열어

김제시새마을회(회장 험길권)는 지난 7일 새마을회관에서 노인 150명을 초청해 2018 추석맞이 어르신공경 '효사랑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성이 담긴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자 추진되었는데, 특히 문순자 김제시새마을부녀회장이 토종닭 60마리를 기증하고 회원들은 십시일 반으로 경품을 준비하고, 험길권 회장은 가수를 초청하여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효사랑잔치가 되었다.

행사는 끝밖에 깊숙이 나눔, 다과와 기념품, 그리고 공연과 경품 등으로 진행되었고 19개 읍면동에서 회원들이 모셔 오신 어르신들은 맛난 식사와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김제시 19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밀반찬, 엄갈이 김치, 송편 도배장판 교체사업 등 홀몸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서, 개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2학기 시작을 맞아 11일 오전 등굣길 임실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및 교통협력단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하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실경찰서장, 임실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원, 모범운전자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스포츠에 연필 등 홍보용품을 배부했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스쿨존 내 속도 및 주·정차 금지 △어린이 안전띠 착용 △영·유아 카시트 장착 등을 홍보했다.

박주현 서장은 "캠페인을 시작으로 스쿨존 내 법규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및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간담회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10일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센터를 방문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청문감사관이 참석해 최근 관내에 발생한 사건의 범죄피해자 지원연계 수법사례 공유 및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남원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골든타임인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법률·경제·심리 등 디자인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디자인된 지원 방안을 모색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서 청문실, 피해자보호지원 사례 발굴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피해자보호지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 및 피해자접점부서 직원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지 고 있다.



피해자보호관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꿈꾸는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김정아 순경은 "각 종 지원은 물론 자체 협업강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부안군지부, 추석명절 맞아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가 지난 10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산면 소산 마을회관을 방문 청소기, 사과, 배, 라면 등을 전달했다.



배인태 지부장은 "올 한해 냉해와 폭염으로 인하여 관내 농작물 피해가 커졌다"며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들과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순창경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주변 전화금융사기 흥보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11일 순창읍 장에서 실시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흥보를 실시하였다.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화대출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기존 보험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를 보는 대출사기가 제일 높고,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인출카드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도도 자체 불법임을 홍보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탈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